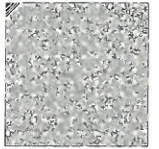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87호 2022년 3월 27일(다해)

사순 제4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 여호 5,9ㄱ-10-12

화답송 | 시편 34(33),2-3.4-5.6-7(◎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2독서 | 2코린 5,17-21

복음환호송 | 루카 15,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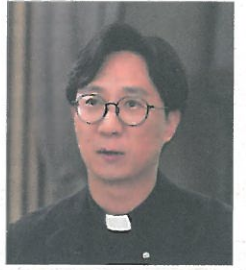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 루카 15,1-3.11ㄴ-32

영성체송 | 루카 15,32 참조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보도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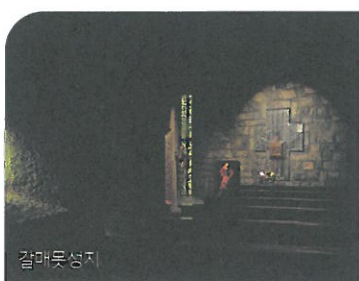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어느 날 작은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는 과정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아버지께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우했습니다. 상속을 챙긴 그는 큰 고민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복음은 이 장면을 두고 '떠칠 뒤에'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그는 한순간에 관계를 단았고, 모든 것을 챙겼고,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 없이 떠났습니다. 큰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간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유산을 밀천 삼아 장사하며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업은커녕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의 몫을 달라 한 것은 건전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는 그제야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 마음먹은 이유는 그저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만, 자신은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어떻게 말할지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작은아들은 예쁘게 보아줄 모습이 없

어 보입니다. 최초로 집을 나갈 때의 태도도, 집을 나가서의 행동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과정도 좋게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던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가진 것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입도 맞추었습니다. 심지어 잘 준비된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역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과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집을 떠난 기억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무시했고 유혹에 걸려 넘어진 일들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분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돌아가서 멋진 말을 하며 그분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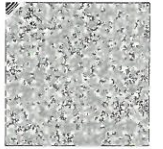
갈래못성지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루카 15,20)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은 차마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가 꼭 껴안고 눈물을 닦아줄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태산의 모래알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 용서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홍찬미 글로리아 | 싱어송라이터

자장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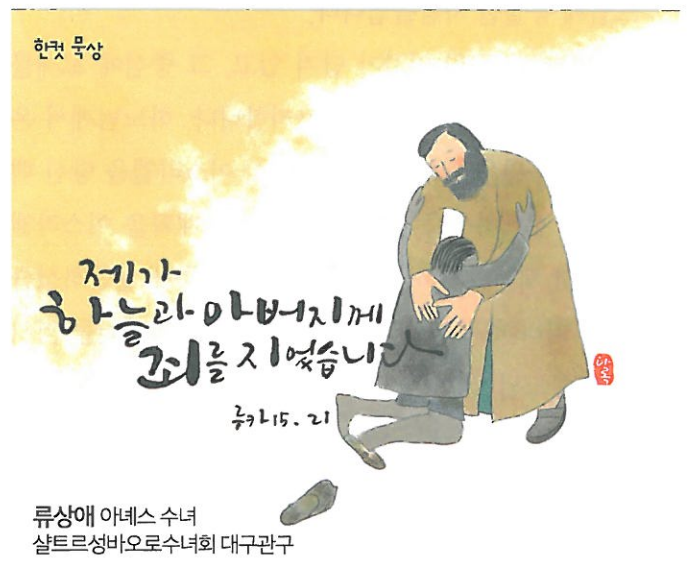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저는 속삭이다시피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다 빼고 부르는 제 노래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찾게 된 지금의 목소리가 저는 싫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일에 반드시 화려한 기교나 폭발적인 가창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태양처럼 강렬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밤하늘의 초승달처럼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악도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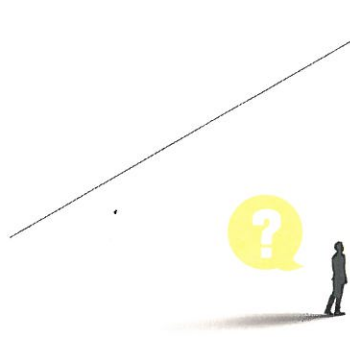
그러니까, 제 음악은 굳이 말하자면 환한 대낮보다는 새벽이나 밤에 더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사람들은 제 노래를 주로 자기 전에 많이 듣는다고 해요. 잔잔하니 잠이 잘 온다면서 말이죠. 제 유튜브 채널에는 <새벽의 자장가>라는 제목의 재생목록이 하나 있는데, 이따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커버(cover) 하여 짧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코너입니다. 잔잔한 목소리 때문에 어떤 곡을 불러도 자장가처럼 들려서인지 꽤 많은 분이 잠들기 전에 제 노래를 듣기 위해서 채널을 찾아주십니다. 수험생과 퇴근이 늦은 직장인들, 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남기고 간 댓글을 읽다 보면 저의 새벽도 한결 포근하게 깊어갑니다.

내 노래 소리가 온 새벽을 가로질러 너에게 닿아라
온 세상이 잠든 사이에 어서 널 어루만져
아픔이 가셔라 눈물도 가셔라
희망 때문에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잠든 이 새벽에
아침이 오기 전, 이 마지막 꿈의 몇 자락만은 행복해라
열일곱 살 무렵에 처음으로 썼던 자작곡 '새벽의 자장가'의 한 대목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음만은 단숨에 열일곱 살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작지만 깊은 소망이 생겨났

던 그날의 새벽으로 말이죠. 아직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내 소리가 아주아주 먼 곳까지 뻗어 나가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곁을 조용히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돌아온 이들의 밤을 나의 노래로 가만가만 다독여 줄 수 있다면. 낮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질푸른 외로움이 밤이면 어느 그 누구도 삼켜버리는 일이 없게, 지친 마음이 다만 잠시만이라도 내 음악 안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은 동시에 많은 것이 되었습니다. 저의 꿈이 되고, 꿈은 저의 기도가 되고, 기도는 저의 길이 되고, 길은 다시 저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정말이지 요란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장가는 그저 자장자장 노래하면 되는, 그런 것이니까요. 제 침대 머리맡에 성경 구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고, 아침이면 제게 희망을 주는 이 말씀을 끝으로, 모쪼록 여러분의 밤과 새벽이 오래 평안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이시네.”(시편 103,3,8 참조)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1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

조한규 베네딕도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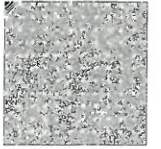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기억’은 누군가의 해석과 생각이 개입하기에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기록’ 역시 주관적 입장이 반영되지만,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기억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되어 계약을 맺고, 역사적으로 체험한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 역사(역사)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歷史)를 읽어가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인(聖人)들 중 어떤 이는 흠과 단점이 많고, 때로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구약의 4성조(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는 물론, 모세같이 위대한 성인도 결함이 있었고,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인들은 죄에 빠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느님 선택과 은총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후 자주 걸려 넘어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구원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중심에 모세를 통한 구원과 계약과 계명이 자리합니다. 하느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이 먼저 체험하게 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사건들 역시 ‘참된 하느님 말씀’이라고 가톨릭교회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하느님 구원 계획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완성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가치는 율법인데, 율

법 중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 십계명, 윤리적이고 종교적 의무 등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다.”(『계시현장』 16행)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지만(루카 22,20; 1코린 11,25 참조), 구약성경은 복음 안에 수용될 수 있고, 신약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얻게 되며, 다른 한편 신약을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서로 깊은 연관성과 단일성을 갖는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과 신약의 새 하느님 백성 사이에 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차이점 내지 신약의 탁월함이 있는데,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성경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언인데, 교회는 네 복음서가 사도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첫째,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의 전달을 통해, 둘째, 교회 설립 당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셋째, 이후 복음서의 편집과 정리를 통해 저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기록에서는 그분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역할과 위치는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루카 1,2)이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알아차린 것들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교구 내 많은 본당과 단체에서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단계 소그룹 모임(a consultative meeting)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며 시노드 교회를 위한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몇 가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노드(synodus)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하는 것이 서툴다'는 고백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고, 발견된 내용을 공유하며 그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 역시 시노드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주셨던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를 시노드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노드(함께 걷는 여정)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물론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우리는 시노드의 함께 걷는 여정을 통해 서로를 동반자로 만나고 서로의 필요와 관심에 귀 기울이면서 존중과 신뢰를 갖고 친교를 이루어 동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노드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 삶의 길에서 시노드 교회,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시노드는 언어적인 표현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실제적인 교회적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시노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구체적인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며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는 이들을 통해 성령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아니더라도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깨닫는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서도 체험합니다. 때로는 따스하게 데워진 찻잔에 담아주는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이나 푸념 섞인 한숨 소리를 부드럽게 받아주는 이웃의 목소리에서도 성령 하느님을 만납니다. 성령 하느님은 대단한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의 주목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작은 일상을 소중히 바라본다면 그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노드의 대화는 타협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하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처럼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을 필요로 합니다. 대화는 정답을 말해야 하는 구술시험도 아니고 억울함을 변명하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시노드의 대화는 경청을 통해 서로와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느님에 대해 알아차림으로써 상대방과 우리 자신을 이끄시는 하느님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함께 걷는 우리의 시노드 여정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바흐 <마태수난곡 BWV 244> 중 '불쌍히 여기소서(Erbarme dich)'

바흐 |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 (음악사 대도감)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저는 음악을 듣는 것만큼이나 영화 보기를 좋아합니다. 영화의 장르를 가리지 않지만, 떠들썩하고 현란한 액션보다는 사람이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잔잔한 영화에 더 마음이 가기에 '예술'이니 '작가주의'라는 설명이 붙은 영화도 웬만해선 지루해하지 않는 편이죠. 그런 제가 두 번이나 실패한 영화가 있습니다. 두 번 다, 정신을 차려 보니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간에 포기했고, 한 번은 끝까지 보기는 했습니다. 이 영화는 20세기의 가장 예술적 감독이라는 평을 받는 망명한 옛 소련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Andrei Tarkovsky, 1932~1986)의 마지막 작품 <희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더러 눈을 감은 터라 얘기를 꺼낼 입장이 못 되지만, 한 가지, 이 영화 시작과 말미에 화면 가득 흐르던 바흐의 <마태수난곡>의 아리아는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위대한 작곡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독일)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교회음악을 써서 주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의 교회음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마태수난곡 BWV 244(바흐작품번호 244)>입니다. 이 곡은 1727년 4월 11일, 바흐가 음악감독으로 있던 성 토마스 교회의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 작곡된 음악극(수난극)으로, 총 68개의 성악곡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으며, 연주 시간이 세 시간에 달합니다. 내용은 독일어 성경의 마태오 복음 26장과 27장을 전하는 가운데, 사이사이 새로운 대본의 아리아와 합창, 당시 전해 내려오는 코랄을 첨가해서 음악적 완성도와 극적 감동을 한층 높였습니다. 대본의 작가는 피칸더(Picander)라는 필명을 가진 시인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헨리치(Christian Friedrich Henrici,

1700~1764)이지만 바흐도 관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첫 곡인 합창 '오라 딸들아, 내 애도를 도와다오'로 시작한 음악은 중반 즈음, 2부에서 복음사가(에반겔리스트)가 마태오 복음 26장 75절을 레치타티보로 읊는 부분에 이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이 성경 말씀에 이어 불리는 아리아가 바로 영화 <희생>에서 쓰인 곡, '불쌍히 여기소서(Erbarme dich)'입니다. 정황상 밖으로 나간 베드로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지요. 여성의 낮은 음역인 알토가 부르는 이 아리아는 노래가 나오기에 앞서 1분가량 바이올린이 지극히 아름답고 애절한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바이올린 오블리가토는 노래 내내 독자적으로 연주되면서 곡에 매력을 더합니다. 아리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하느님, 제 눈물을 보아서라도 불쌍히 여기소서. / 여기 보소서, 당신 앞에서 제 마음과 눈이 애통하게 우나이다. / 나의 하느님, 제 눈물을 보아서라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겪을까요?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마다 <마태수난곡>의 아리아 '불쌍히 여기소서'처럼 눈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해봅니다.

<마태수난곡> 중 '불쌍히 여기소서'
노래: 율리아 하마리



<마태수난곡> 전곡(全曲)
연주: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

복음을 담은 서정적인 유리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최영심 유리화, 1992년, 대치2동성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유리화는 12세기 고딕 시대부터 교회 미술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줍니다. 아름다운 유리화는 참빛이신 하느님의 빛을 받아 완성되는 특별한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성당 유리화는 1898년 명동성당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에 많은 성당으로 퍼졌습니다. 서울대교구에도 1970년대부터 여러 성당에 유리화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주로 성경의 주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화의 선구자 이남규(루카, 1931~1993) 화가에 이어서 최영심(빅토리아, 1946~) 화가가 유리화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최영심 화가의 유리화는 간결한 형태에 서정성을 담아 친근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초기에는 유리에 흑유로 그림을 그린 후 구워내서 회화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차츰 주제를 더욱 단순하게 묘사하였으며 흑유도 사용하지 않고 맑고 단순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작가는 모든 것을 비운 후, 그 자리에 아름다움을 담은 선적인 유리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가가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유리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수도자처럼 신앙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가는 오래전에 우리나라와 로마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후, 오스트리아 솔리어바흐 시토 수도원 유리화 공방에 가서 유

리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난 유리화 장인 루카스 훔멜브룬너(Lukas Hummelbrunner, 1933~)와 가정을 이루며 유리화 작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성가정(최영심 유리화, 2003년, 한남동성당)

최영심 화가의 유리화는 오스트리아의 여러 성당과 수녀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인의 정서가 가득 담긴 유리화는 유럽의 전통적인 유리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성당에서도 성경과 신앙의 주제를 다룬 그의 유리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232개 본당 가운데서 12개 본당 - 대치2동(1992년 제작), 압구정동(1995년), 수서동(1996년), 신대방동(1998년), 문정2동(2002년), 세종로(1999년), 한남동(2003년), 방학동(2003년), 방화3동(2007년), 신천동(2011년), 장한평(2012년), 시흥5동(2014년)과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당(1997년, 혜화동)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판공성사 편

#가톨릭튜브 #어안채 #인천교구_청년_1945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마침 오늘은 사순 시기의 한 가운데인 '즐거워하여라' 주일입니다. 참회와 속죄의 시기이지만, 파스카 축제를 기다리며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지요. 이제 사순 시기도 후반부에 접어들었으니 오늘 본기도에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일은 고해성사입니다. 아마 판공성사표도 받으셨을 것이고, 본당 판공성사 일정도 대부분 나왔을 것입니다. 매년 때가 되면 의무감에 하시던 판공성사를 이번에는 더욱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은총을 얻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영상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판공성사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겠지요? 마침 서울주보를 만들고 있는 우리 교구 문화홍보국의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의 <가톨릭교리상식> 코너에 판공성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채널에 가시면 다양한 교리 상식과 우리 교구의 문화 행사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판공성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영상이 수원교구 청소년사목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어안채' 채널에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차피 안될 채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는 채널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판공성사의 의미? 그리고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려면? -마진우 신부님-」 영상을 추천합니다.

판공성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야겠지요. 고해성사는 고해소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 때문에 아파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통회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다짐하고서 고해소에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준 보속을 해야지요.

그래서 많은 본당에서 집중 판공성사를 할 때 기다리는 동안 성찰을 도울 영상 자료를 틀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 자료들은 유튜브에서 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구 사목국 채널의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성찰' 영상과 인천교구 청년부에서 운영하는 '인천교구 청년 1945' 채널의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사순 시기 양심 성찰> 영상을 권해 드립니다.

이번 판공성사를 잘 준비해서 기쁨이 가득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세요.

가톨릭튜브 「판공성사는 한국에만 있나요? 가톨릭교리상식 ep7」 영상



어안채 「판공성사의 의미? 그리고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려면? 마진우 신부님」 영상



사목국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성찰」 영상



인천교구 청년 1945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사순 시기 양심 성찰」 영상



어안채 어안채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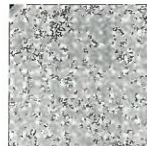
용기장학회

용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
-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문의:** 02)727-2525 사무국
- **계좌:** 국민은행(375301-04-076713), 우리은행(454-037208-13-001), 신한은행(140-008-715396), 농협(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 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 1982년 4월 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대침묵 피정

주제: 내면의 아이의 회복
 때: 5월20일~22일(2박3일) / 강사: 문종원 신부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7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성경통독 4월 피정(사목국)

내용: 역대기 역사서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곳: 4월6일(수)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2만원 / 입금: 우리 010-8889-5425 조창수
 문의: 010-7586-5425(문자로 문의) 황데레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3월31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단중독사목위원회,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 / 문의: 02)364-1811, 031)810-903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돋움당 갖기 미사)

때, 곳: 1311차 미사 3월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서포 분당, 마산 분당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2022 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4월21일 개강) / 문의: 02)727-2047

인문학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영성	청년 Hello 기도, 가슴쿵닥 교회사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문화	프로트리에이트 드로잉(대면/비대면), 캘리그라피 성경쓰기, 칼럼바로 연주하는 성가, 스테인드글라스 유리 모자이크, 스테인드글라스 케임기법, 망고실과 한지로 표현하는 성경 속 이야기(원데이),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는 이콘 그리기(원데이)

캘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임정열 십자가전: 1전시실
 안수진 개인전: 2전시실
 캘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박은혜 캘러그라피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30일(수)~4월4일(월)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모집

한국스카우트·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문의: 02)762-9857 (화~토) 8시~17시
 부재 시 이메일 문의: seoulscout@catholic.or.kr

주교좌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현장접수 4월3일 14시~16시(부스)·4월5일~24일(본당 사무실)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
 서류: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참고
 교육일정: 5월1일~29일 매주(일) 14시~15시30분(5주간) 대면수업 / 문의: 02)774-1784
 견진성사: 6월5일(일) 13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10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예비/신혼부부, 개인)
 때: 4월21일~6월30일 매주(목) 20시(총 10주 강의 / 5월 5일 휴강) / 모집인원: 40명(선착순 마감)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발급) / 신청 및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4기도 신청 가능합니다(문의: 생명위원회)

가톨릭 청소년들의 모임 가톨릭학생회 회원 모집

자녀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시나요? 자녀가 성당에 나갔으면 하시나요? 가톨릭학생회에 초대합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신앙 활동을 원하시나요? 주체적인 신앙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냉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톨릭학생회에 가입하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시~18세)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해회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 모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도보순례 신청 및 순교자연구 총서 판매 안내

1)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날짜	4월5일(화)	4월9일(토)	4월19일(화)
코스	3코스 일치의 길	2코스 생명의 길	1코스 말씀의 길
비고	대중교통 이용	당고개 순교성지까지 순례	가톨릭대 성신교정까지 순례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 문의: 02)2269-0413
 신청: 3월2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한국 순교자연구 총서 판매 안내

순교자현양위원회는 1996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국 순교자연구 총서' 간행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21년만에 '역주 사학징의2'가 출간되면서 13번째 연구 총서가 간행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순교자현양위원회를 통해 '한국 순교자연구 총서'를 구입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복동 등)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4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젊음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4월2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자를 위한 8박9일 생태 연피정
 주제: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때: 7월11일~19일 /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침묵·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2박3일 4월8일(금)~10일(일)·4월15일(금)~17일(일), 4박5일 4월27일(수)~5월1일(일)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32)465-0835
 홈페이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4월8일~11일, 5월20일~23일, 6월17일~20일
 곳: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피정
 내용: 성경지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천양선교사) / 성경지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4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갇힌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4월4일~6일, 4월10일~12일, 4월19일~21일, 4월24일~26일, 5월6일~8일, 5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1차	4월22일(금)~30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2차	5월20일(금)~28일(토)	010-3540-9001

가정선교회 4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2367-2297, 010-5674-8511, 02)777-1773 대표

말씀 키우기와 성모신심 첫 토 미사	4월2일 13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한철호 신부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4월6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교육

수제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4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쿠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기·청년반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청년 13기 저녁반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오르프'와 함께하는 힘,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4월19일~5월1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3월11일~6월10일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총13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사무실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29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개강: 4월5일(화) 기초·초급반, 4월7일(목) 중·고급반
 접수: 3월27일~4월7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미사

평화묘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묘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2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묘주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2일(토) 오전 11시, 평화묘원(내) 봉안당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3월31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4월2일(토)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곤뵘뵘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4월2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3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3월30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4월1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3월27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모집

예수회센터 카페봉사자 모집 및 일상영신수련
 문의(접수): 02)3276-7733 예수회센터 행정실 / (토·일) 휴무
 1) 예수회센터 이나시오 카페 신입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소정의 바리스타 교육 후 봉사시간 조정 및 선정합니다
 2)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19번에 의한 영신수련)
 영적 지도: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의 사제와 수도자들
 때: 8월31일~12월21일 매주(수) 오전 10시~12시(17주 과정)

인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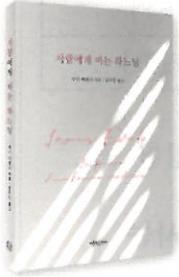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ij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직장 내 어려움·대인관계·종합심리검사 진행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4월3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대교구천주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수녀회	4월10일(일)	서울 분원(보문로 27길 20)	010-9353-1773 노아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4월3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사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정화와 준비의 시간

제 모든 것을 당신께 오롯이 바치나이다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개정)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되는 진정한 기도의 시간

| 루이 에블리 지음 | 16,000원

우리의 기도 습관에 의문을 던지며 진정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정해진 문구를 하느님을 향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세계의 심장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신학자 발타사르의 신학적 총체가 담긴 책

|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24,000원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문학적 표현으로 녹여 낸 명저로 사랑은 조용하게 우리 자신과 온 우주에서 끊임없이 약동하고 있으며, 사랑의 박동에 공명하여 우리 심장도 함께 고동칠 때만 모든 갈망을 충만히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교황님과 함께 준비해 보세요!

| 교황청 내사원 지음 | 10,000원

고해성사를 부담으로 느끼고 고해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고해성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청해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으로 깨닫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 데이비드 나이트 지음 | 3,500원

이 책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약함, 고통,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희망과 용기의 마음이 샘솟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밝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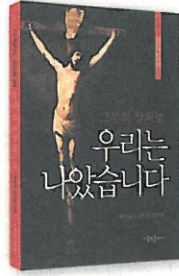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사순 시기 동안 기쁜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유경춘 지음 | 10,000원

유경춘 주교의 신심을 일깨우는 묵상 글과 기도가 성화와 함께 담긴 사순 시기 묵상집입니다. 이 책과 함께 이번 사순 시기 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동참하여 정화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더욱 뜻 깊고 기쁜 부활을 맞이해 보세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깊이 묵상해야 할 이야기

| 정진석 추기경 지음 | 14,000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절정에 다다랐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분의 수난과 죽음, 부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성주간 동안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들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 사업의 성취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제2222(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사순시기 맞이하여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 전하기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이 카드를 보냅니다.

대상 : * 코로나로 한동안 성당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

* 기도가 필요하신 어르신

신청기간 : 3월 12일~4월 10일(사순 5주간)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초등부교사 (010-9035-0640)

◎ 성모 신심 미사 : 4월 2일(토) 오전 10시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4월 7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4일(금)~4월 8일(금)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4월 15일(금) 오후 3시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2/23~3/22).

성명	세례명	구역/반
권정현	비비안나	2-5
지가영	마리아	3-1
박성우	토마스아퀴나스	5-2
정승화	이보헬로리	6-2
배강현	라파엘	6-5
전종한	베르나르도	7-4
김빛나라	스테파노	10-1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14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15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16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4월 17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4월 14일~16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27일(주일) 오후 1시 대성전

◎ 화요일저녁미사 장소 변경 안내

3월 29일(화)부터 저녁 7시미사는
지하소성전에서 드립니다.

◎ 군입대 자녀 부활선물은 4월 3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연희동 성당 청년 사순특강

일시 : 4월 3일(주일) 19:00~20:00

제목 : 미사, 신앙생활의 정점이며 원천

강사 : 이영제 요셉 신부

(서울대학교 2004 서품, 국내수학)

◎ 2022년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교리시작 : 3월 12일(토) 어린이 미사 후 / 304호

접수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문의 : 대표봉사자 (010-2561-4773)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3. 2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74	681 (32.8%)	612 (29.5%)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23,388,9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정영옥 글라라 상가 이십만원

고 최성탁 마리안나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3월 14일~20일)

김형준다니엘 삼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김경만 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3주일)

교무금 6,545,000원

주일헌금 4,017,71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715,500원